Interview

학회지 학술진흥 재단 등재 기대

올해 봄 韓日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정

하 영 선

한국포장학회 회장

지난 해 11월 24일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열린 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에서 대구대학교 하영선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2년간 포장학회를 이끌어갈 하영선 신임회장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1.한국포장학회 신임회장으로 취임 소감과 그간의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시기에 한국포장학회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1970년에 대학에서 농화학전공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교수로 초빙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끝에, 사양하고 업계에 뛰어들어 열악한 조건하에서 5년간 불철주야로 기업과 생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포장이 매우 열악하여 KS규격집으로 포장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1980년대 초에 식품포장공학 저서를 발간하고 이 저서를 계기로 KIDP와 인연이 되어 포장관리사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진흥위원장을 맡아 경북과학대학을 비롯한 4곳의 전문대학에 포장학과를 설립하였고 연세대에 포장학과를 설립하여 대학원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매우

좋아져 포장학이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첨단학문분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식품포장공학" 저서를 발간한지 20년만인 2003년에 집필한 "식품의포장과물류" 저서가 2004년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 식품 및 식품포장업계에 재직하시면서 업계 애로사항, 또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순당의 전신인 (주)한국미생물공업에서 연구소장과 공장장으로 있을 당시(1970년대 초)에는 포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조차 제대로 안되어 국내 서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상품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의거한 KS규격집에 의존하여 포장에 대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식품포장공학" 저서의 집필을 위하여 국내에 있는 수입서적상에 낸 오더(포장 및 식품포장 관련 해외도서 구입)의 결과 상당수가 도로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서적이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3. 한국포장학회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포장학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도 많이 미비한 상황이고 회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한분 한분의 학문적 열정과 산학협력을 위한 역량이 다른 학회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이 매우 훌륭하므로 비록 회원의 수는 적더라도 회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어느 학회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학회로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학회가 솔선하여 포장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관계의 사업(한일공동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잡지 발행 등의 사업)도 다른 학회에서는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엄청난 성과를 우리 임원들이 합심 협력하여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학회의 모든 사업이 금년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행한다면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학회 임원들이 지금과 같이 초심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 임기 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회 본연의 업무인 '포장학'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포장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도쿄팩과 세계포장학술대회 참석 중에 일본포장학회와 한일양국의 포장학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1년에 한

번 국제학술지(영문)를 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 봄 우리나라의 킨텍스에서 양국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며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국제학술잡지를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SCI 등급으로 학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내에서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인정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는 총회와 아울러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계학술대회에는 업계와 관계는 물론이고 포장학과 관련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함께 우리국가의 학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의 포장학과 설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포장기술편람 발간사업과 포장기술 지도사업 참여 등 산학관연의 협력을 통한 국가의 포장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5. 정부나 포장관련 유관단체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회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포장산업의 학문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포장학'이 문명사회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없이는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내 포장산업 연구개발(R&D)의 기능이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산업이던지 신제품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고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은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각각의 영역이 있고 전문가들도 각자의 활동영역이 따로 있어 포장이라는 한 테두리에 다 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의 유기적인 협력과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의 발전은 포장이 포함하는 전 영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과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장관련의 모든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한국포장학회 임직원 및 회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앞으로 포장관련 산학관연이 다 함께 포장경쟁력제고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포장학회 임원과 모든 회원은 학회 본연의 역할인 포장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올바른 산학관연 협력관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 전반에 걸친 발전을 위하여 포장학 분야는 물론이고 나노테크 분야, 물류 분야를 포함한 유통 분야와 마케팅 분야까지 폭넓은 학문분야의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니 폭넓은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ko